

III. 노년기의 정신사회적 부담인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 호 영

1. 서 론

노인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논의하는데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그것은

- 1) 노인 또는 노화에 대한 편견의 정리와
- 2) 노년기를 인간발달사적인 견해로 보는 시각과
- 3) 노인이나 노화현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을 배운다는 자세이다.

이 세가지 조건을 마음속에 받아드리지 않고는 노인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도 이 세가지 조건을 받아드린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바라기는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이 노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노인들을 돕고 싶다는 의욕도 생기는 노인치과학 이라는 특집을 마련한 명분도 뚜렷이 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2. 노인에 대한 편견

편견이란 정의를 내려보건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또는 “정당성을 무시한 한쪽에 대한 판단으로 오는 상처나 손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쪽”이란 뜻은 “내쪽이 아닌”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내가 속하지 않는 쪽” “내가 될 수 없는 쪽”이란 말과 일치한다. 백인이 흑인에 대한 편견,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갖는 편견등이 그예가 되겠다. 내가 일단 백인이면 흑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이 편견의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노인에게 편견을 가

질 수가 없고, 또 노인을 나와 다른쪽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은 결국 시간문제이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예외없이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얼마 안있으면 노인이 되고 내가 거기에 속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가 없다. 이말은 바꾸어 생각해볼때, 결국 우리가 편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노인에 대한 이해 또는 노화현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3. 노 화

노화란 넓은 의미로 보면 수태(conception)로 부터 성장, 성숙하여 죽음에 이를때까지의 전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것을 말하고 있어, 인간발달사상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서 성인이 되어 성숙기가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이행되는 과정, 즉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생물학적인 변성에 따라 점차 쇠퇴되는 상태를 시사한다. 그러니까 노화란 생물의 생명활동의 말기에 오는 필연적과정으로 일반적이면서 비 가역성인 종말단계로 보고 다음 세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가 시간과의 관계로서 시간의 경과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세포, 조직, 장기, 개체전반에 공통적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기는 변화이며,

셋째로는 본질적으로 생체내에 존재하면서 예외없이 생기며

넷째가 연령의 진행에 따라 수반되는 자기회복 능력의 저하로 본다.

즉, 병에 걸리는 확률, 죽음의 확률이 연령과 더불어 증가되는 유해성(deleteriousness)이 그것이란 말이다.

4. 노년기

물론 노화를 이같이 정의 하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 할 사람은 없다. 또, 노인을 누구나 이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어 기능이나 능력면에서도 일단 생산기가 끝난 고물로 보고 그의 장래라는 것이 황폐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의학이라든가 치학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은 생물학적인 견해로 세뇌가 되어 있기때문에 “노인”하면 금방 생물학적 과정으로서의 “노화”를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치과학을 노년기를 생물학적 변성의 관점에서 시발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는 노년기를 일생 지속되는 “발달과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도 배우고, 발달되고, 자라고 성숙해진다. 실은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더욱 맹렬히 배우고,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 죽음을 수락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나머지”생애를 생각할 때 더 없이 그 남은 시간이 아깝고 귀하며 이 시간을 어떻게 뜻있게 보내느냐 노력하는데서 성숙과 발전이 있는것이다.

얼마전에 근무하는 병원 성형외과에 65세의 시골 신사 한 분이 찾아왔다. 그분은 선천적으로 hare lip 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일생동안 이를 고치지 않고 시골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과거에는 그 때문에 비판도 해보고 원망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자기의 입술이 일찍이 교정이 되었던리만 자기 생활이 좀더 떳떳하고 알차고 보람있는것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는것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앓았어 일생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가는데 다만 몇 년이라도 교정된 모습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몇 년 살다가 무덤에 들어갈때는 올바른 몸과 마음의 자세로 묻히고 싶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고,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만 있을 수 있는 성숙과 자기구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노화가 가져다주는 노년기의 취약성과 한

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취약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과거 자기가 발전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창의성을 찾고 발휘하여 인간적 성숙과 성취 그리고 생의 즐거움을 맛보는 자아주체성(identity)의 재확립이 바로 이 단계가 던져주는 과제인 것이다.

노인에게에는 여러가지 신체적인 악조건, 그리고 정신사회적(psychosocial)스트레스가 있다. 이 악조건을 우리가 알아야하고 이와 싸우는 노인들의 노력을 감정이입(empathy)의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5. 인간 발달을 통해본 노인의 정신사회적 문제

발달이란 것은 성장과는 달라 전진(progress)과 퇴행(regress), 그리고 개조(remodeling)등을 모두 포함한 계속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일생주기를 여러단계로 나누어 보면 그때 그때 발달과정에서 독특한 갈등(conflict)과 과제(task)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그 시기에 따라 독특한 양상들이 있다. Erickson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8 단계로 나누고 있고 그 마지막 단계가 노년기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단계를 마지막이란 종말의식으로 질병(sickness), 장애(disability), 황폐화(deterioration)등과 동격으로 보지 않고 이 단계도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다음단계 즉 죽음으로 이행되는 전환기로서 내적, 외적 전환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 했다. 그 전환기의 특징을 그는 창조성(creativity)라고 하여 전단계에서 발휘 못했던 새로운 능력, 예컨데 과거를 정리하는 능력, 잠재되어 있었으나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가능성 신뢰로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능력, 인생을 즐기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을 일단 통과하고 인생의 한계를 수긍한 후에 맛보는 실존적인 해방감과 재생의 기쁨등을 이 노년기에 충족 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6. 노년기의 성격특성

연령증가에 따라 우울성향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노년기에 엄습하는 정신, 사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의 질병, 배우자의

사망, 경제 사정의 악화, 사회나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한등이 그 예가 된다. 이같은 우울성향은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개개인이 갖는 적응능력과 타고난 기질등이 있어 이를 어느정도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던 우울증상의 발생여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둘째로 노인에게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된다. 노화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활동자세도 감소되면서 사물의 판단과 이로 인한 행동 반응의 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부로 돌리려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더구나 신체상의 변화로 자아상(self-image)이 달라져서 적극적이고 집요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셋째로는 성역할에 대한 자각의 변화가 오는데 남자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수동적이 되며 위축되고 양육동기가 증가한다.

여성노인들은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권위적이며, 의견표시에도 적극적이며 자기 중심성과 공격성이 증가되는것을 볼 수 있다.

넷째로는 사고의 경직성(rigidity)을 들 수가 있다.

경직성은 융통성(flexibility)의 반대 개념으로서 어떤 태도, 의견, 문제해결상황에서 그 방법이나 반응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쓰던 방법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경향이다.

다섯째는, 조심성의 증가이다.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로는 노인 스스로가 정확성을 더욱 중요시 하기 때문이고, 또 시각, 청각, 기타 신체나 인지 기능이 감퇴되니까 이에 대한 대상기능으로 더욱 조심스러워 지기도 한다. 또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고도 이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태에 대한 확실성을 되풀이 해서 높여야 하는 행동이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섯번째는 노인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의욕을 젊은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자기가 죽고 난후에 이 세상에 다녀간 흔적을 남기고 싶은 의욕과 욕망이 있기때문이다. 종종 세대 계승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시도하는데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재산과 유물 또는 유업을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의욕이 너무 강했을때, 또 넘겨주는 시간문제를 너무 재다보면 자손들과 여

러가지 갈등이 빚어질때가 있다. 그중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 시키려는 노력은 아주 건설적인 계승의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의존성 증가의 문제가 있다. 실지로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쇠퇴하고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메말라있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좀더 든든한 누가 있으면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노인들을 우리가 치료할때 이와같은 의존성이 한없는 것으로 여겨져 무언가 부담이 될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노인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수십년 동안 돌보아주고 치료해 본 의사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것은 노인들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라고 한다. 노인들이 의존하려는 경향은 있지만 어떤 한계를 지킨다든지, 또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는 놀랄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하긴 노인들은 남에게 폐가 된다거나 누구에게 빚을 지고 세상 떠나는것을 원치 않는다.

7. 노년기 사고와 인지기능의 특징

인간의 사고 체계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봅니다. 그 하나가 액체형 사고이고, 또 하나는 결정형 사고이다. 액체형 사고는 마치 액체가 담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듯이 사고방식이 임기응변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순발력이 능한것을 말한다. 그 대신 이 형태의 사고는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결정형의 사고는 확고한 틀을 갖고 있는 사고의 특징이며, 이들은 사람의 오랜 경험과 지혜에 의해 형성된것이다.

결정형의 사고체계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고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액체형에서 결정형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그 독특한 사고방식 때문에 외교관이라든가 정치가, 그리고 어떤 기관의 정책수립에 아이디어를 주는 고문역등에는 적격이다.

또 많은 사람이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지로 IQ검사를 해보아

도 평균적으로 노인의 것이 젊은이의 것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위집중력의 저하가 그 원인이어서 이 때문에 문제해결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한 가지 일만 노인에게 시켰을 경우 그 결과는 젊은이의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즉 일처리의 속도의 차이와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데 문제가 있지, 인지능력에서 질적으로 문제해결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중에서 간혹 인지능력이 비정상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계속 자신의 주위 집중력이나 기억력 그리고 일의 속도를 훈련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8. 노인과 상실(loss)

노년기의 성격특징이나 여러가지 사회정신학적 문제를 종합하여 노인들에게 오는 주요 부담인자(stressors)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 및 외부적 요인

- ㄱ. 배우자나 친구, 친족의 죽음
- 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상실
- ㄷ. 경제적인 타격
- ㄹ. 은퇴
- ㅁ. 노인에 대한 경시 및 편견등의 사회적 상실

2) 내적요인

- ㄱ. 성격의 특징이나 변화로 오는 적응장애
- ㄴ. 신체질환 및 이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ㄷ. 노화변화로 생기는 자아상의 손상
- ㄹ. 제반기능저하로 인한 적응부진
- ㅁ. 죽음에 대한 자각

여기서 보다시피 노년기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상실, 즉 loss라고 할 수 있다.

상실이란 개념은 원래 사랑하던 대상, 전형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심리과정으로 일찍이 정신분석에서 이해가 되었다.

알다시피 Freud가 유명한 논문 "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이 추모의 과정을 심리적으로 분석

하여 우울이란 현상과 결부시켜 설명했다. 그래서 상실(loss)을 치루되에는 반드시 추모의 과정을 따르게 되어있고, 이 과정에서 마음의 균형을 잃고 슬픔, 좌절, 분노등의 감정속에 빠지는 것이다. 여기서 누누히 추모과정을 논하지는 않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실이란 오직 사랑하고 밀착된 대상을 잃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것으로 간직하던 것을 갑자기 잃을 때에는 똑같은 추모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특히 노년기와 연결해서, 현실적 또는 상징적인 상실이 노인들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일생 종사하던 직업, 자기의 신분, 명예, 권위, 가족, 가정, 자신의 능력, 건강, 재력, 자식들의 떠남 등등 배우자를 상실하는 것과 맞먹는 심각한 상실이 노년기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상실이 있을 때 실움을 느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불안, 공포, 분노, 우울, 죄책감 등이 생겨 심각한 인격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의식에도 변화가 오고 사회적으로도 은둔 상태에 들어가기 쉽다. 거기다가 어떤 신체의 병이라도 겹쳤을 때는 사는데 대한 애착도 없어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난다. 또 자살을 하지 않아도 노인이 배우자를 상실했을 경우 2년내에 남아있는 노인이 죽는 사망율은 엄청나게 크다(80%).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정신과 교실에서 집계한 노인정신장애 역학 조사의 결과를 보자.

다음은 1979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어떤 지역주민의 자살통계이다.

노인인구의 자살율이 높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살한 이유가 신체질환, 특히 뇌졸중으로 생기는 신체 일부의 마비, 그리고 경제적인 곤란등이 주였다.

농촌에서 신체가 부자유로워지면 노동력이 상실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게다가 경제사정마저 어렵다보면 노인들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이나 폐가 되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는 설명이 쉽게 나오는 것이다. Kuypers와 Bengtson은 노인이 스스로 무력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과정을 사회적 와해증후군(social breakdown syndrome)이라고 했다.

즉 사회에서 역할의 상실이 있으면 자신의 사회적 기준이 없어지고 자존심도 약화되며 점점 자기자신 이외에 사회에서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나 일반사회에서는 나이를 먹

은 사람은 낡은 세대에 속하고 무능하다는 고정관념으로 평가 하니까 그나마 자기평가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 실지로 노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떨어뜨린다. 즉 하나의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으로 인한 사회적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과 역할을 제공하고, 긍정적이고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인생의 후반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social norm)을 제공하므로써 나이를 먹는데 대처하여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성인치고도 한참 나이 젊은 성인층의 하회적 norm을 가지고 노인을 재어보고 판단하여 무능하다고 제외시키는 과정이 급기야는 노인의 사회적 외해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과정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노인들의 심리적인 상실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한데 불과하다.

우리는 노인을 진료하고 신체적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노년기에 겪는 상실을 신체상(body image)이 겪는 손상이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9. 신체상(body image)의 손상

나의 고등학교 동기중 하나가 미국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한국에 나와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치과의료로 개업한 친구가 있어, 40년만에 그 치과의사를 만나러 찾아갔다. 좀 놀라게 해준다는 뜻에서 미리 전화도 않고 그냥 찾아 갔다. 서로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이 치과의사가 못알아보니까 미국서 온 친구가 치과의사보고 “자네가 고등학교때 내반에 있었어”라고 말했다니 그 치과의사가 공손한 태도로 “그러세요? 그러면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는데요”하고 반문하더라는 것이다. 즉 늙어보이니가 선생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 누구나 자기자신을 나이 보다 더 젊게 본다는 뜻이다. 이것은 항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계는 늦게가고, 또 심리적으로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남자가 50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인생에서의 생산이 절정이 지나 집의 크기도 줄여야하고 씽씽이도 절약해야 하는데 50대가 넘어서도 차도 외제를 사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젊은 여자를 숨겨놓고

그 생활비를 댄다는 등, 이것 모두가 나이를 먹은 것에 대해 부정이 아니겠는가?

마음에서 늙어가는 것은, 몸까지 감당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의 노화현상인데, 이것이 늘 심리적인 연령을 배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의 변화가 와서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자기의 이상적인 신체상에 상처를 준다.

Ego라는 것, 즉 자아는 Freud가 이야기 한것같이 신체자아(body ego)이다. 우리가 인격발달 과정을 보더라도 자아(ego)가 형성될때 신체의 자각이 많은 역할을 한다. 어머니가 젖먹이고, 안아주고 또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것인지 시각으로 인식되면서, 자기와 자기가 아닌 바깥세상의 한계도 알고, 또 자라면서 배탈이 나거나 감기에 걸려 목이 아프면서 뱃속에는 위가 있다는 사실과 목속에는 편도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빨이 날때도 입속이 근질근질 한다. 다른 장기와 달라서 이빨은 한번 모조리 잃었다가 영구치가 다시 나오는데 영구치는 유치같이 잃어버려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손질해서 잘 간수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단단히 부모들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신체의 부분부분을 알고, 또 전체의 몸을 파악하면서 자기의 뇌속에는 또하나의 신체의 형상이 그려져서 새겨진다. 즉 마음속에 자기의 몸이 또 하나 도사리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체상(body image)라고 부른다.

우리가 신체상에 고장이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는사람은 잘 알것이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것이 소위 phantom limb 이란 현상이다. 어떤 사고로 한쪽다리가 절단되었을때 이미 절단되어 없어진 하지의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아픈것이다. 환자는 실지로 심한 동통을 경험하고 시일이 가면서 그 아픈 부위가 차츰 상층해서 절단된 stump에게 까지 미치고 결국 오랜 시일후에는 동통이 없어진다. 이 phantom limb 이란 현상은 신체에 큰 변화가 온후 이에 준해서 마음속의 body image에도 변화가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동통을 겪는 것이다. 유방암의 치료로 유방절제 수술을 한 후 환자가 자꾸 수술의 scar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상한 동통을 느낀다. 남이보면 왜 그러나 할 정도로 자꾸 scar를 만지고 동통의 감각을 되풀이해서 느끼는데 이것은 신체

상이, 실제로 변형된 신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급격한 신체의 변화는 반드시 신체상에 충격을 주고 그래서 신체상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치아도 마찬가지이다. 이빨을 빼고 아직도 신체상은 없어진 치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인공적인 이빨을 만들어 끼우면, 이 신체상의 혼란으로 고통스러운 감각을 체험하면서 보철 치아가 나의 치아가 되는것을 거절한다. 아무리 완전히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 틀이가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것이 아니라 신체상의 치아가 아직 상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이 꺼어드니까 견딜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치아는 우리의 신체의 부분중에서 성가 못지않게 정신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곳이다. 중요한 부위 일수록 이점에서 예민한 것이다.

노화현상의 하나로 치아에 많은 변화가 온다. 다른 신체가 늙는것과 마찬가지로 치아도 나이를 먹으면서 현저하게 늙는다. 외모상으로도 웃어도 젊었을 때같이 매력이 있는 치열이 보이지 않는다.

이빨모양이 하나하나 마치 해골에 붙어있는 치아 같이 보여진다. 기능적으로도 사과나 갈비를 먹는데 지장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치아도 하나하나 잃어 가는데 이를 대처시키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이같은 변화는 신체상에도 큰 손상을 주고 그래서 노인은 이것을 또 하나의 상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손상을 예전같이 쉽게 회복할 수가 없고, 음식의 맛은 물론, 씹는 맛, 웃는맛 즉 사는 맛을 잃게한다

사람이 이가 결손되면 얼굴의 면모나 표정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 이와같은 상실은, 다른 추모현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심리반응을 똑같이 일으킨다.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을 잃은 사람같이 노엽고, 싫고, 화가나고, 내 몸을 함부로 학대받는것 같고, 무시당하는것 같고, 무섭고, 불안하고, 의심이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환자를 여러분이 다루실때는 이같은 묘한 심리적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10. 노인과의 치료관계(결여)

노화현상 그리고 자아상의 손상은 노인들의 자기평가를 저하시키고 자기평가의 저하는 우울증세를 악화시키면서 여러가지 신체증상을 자아낸다. 그래

서 치료관계에서 계속 증상이나 불평을 호소하며 반면 치료에는 저항하는 태도를 보일수도 있고, 또 고집스러운 집념에 사로잡혀 신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거부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반 치료적인 저항은 바람직한 치료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치료자측의 편견이나 노인의 장래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 즉 무엇을 하건 예후가 나쁠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노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empathy)이 부족해서 생기는 수가 많다.

물론 노인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그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전인적 접근으로 진단을 내리고 또 이를 잘 설명해 주면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노인을 치료해 본 일이 있는 전문의는 누구나 동의하는 점인긴 하지만, 노인환자에게 이런 시간의 투자를 해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가지 확신은, 노인환자 같이 뒤가 깨끗하고 협조적이며 또 지시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연령층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이고 수용적이다. 노인들의 자기평가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잘 들어 주고 관심을 쏟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드리면 좋은 환자가 될뿐 아니라 여러분의 "팬"이 되어 준다. 노인학을 전공하는 어떤 의사가 말하듯이 이 영역에 일단 발을 디더놓으면 살아서 자기발로 걸어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노인들을 치료하는것이 중독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도 있을 정도이다. 이같은 표현들이 전혀 근거없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에게나 작고 큰 손실을 애도와 해방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재생의 힘을 회복하는 모습을 본다. 재생을 하고, 새로 힘을 얻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면서 계속 창조적인 방향으로 생을 이끌어가는 노년기를 우리가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노인들이 움추리고 용기를 잃고 선뜻 모험을 걸지 않아 답답한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과거의 것에만 집념되는 연민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런 모습도 진퇴가 있는 발달과정으로의 적응이란 원칙으로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노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것이 많다. 이 배운것들이 또 "우리들의 노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노인은 우리 차례

가 되면 의당히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앞서간 분이니까 그분에게 그 길이 어떤것가를 물어보는것이 현명합니다. 그길이 어려운 것, 쉬운것인지 또는 순탄한것인지 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인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의

음악은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3악장이 끝나자 청중이 박수치고 일어서는 것은 큰 실례이다. 마지막 악장은 으레히 웅장하다. 우리가 이 마지막 악장을 기다려서 들을줄 알면 우리의 생애도 보다 큰 충족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83번지 (광풍빌딩 601호) ☎ 756-2875 · 2876
773-3949

(주)신흥의 사후관리신고는 아래의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756-4903/773-5871

전화를 주실때는

- 고장상태 및 고장부위
- 부품의 교환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A/S팀이 사전에 부품을 준비해서 방문하게 되므로 고장부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